

열하일기 속 변화와 주체성

20211 김예솔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 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박지원의 작품인 1)‘통곡할 만한 자리’는 정 진사와 박지원의 관점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같은 요동 별판을 바라봐도 정 진사와는 달리 박지원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느낀 새로움에 대한 기쁨을 의미한다. 박지원은 당시 고립되어 있던 조선에서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무역의 중심인 청나라 상인들과의 교류에 감동을 표한다. 그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느낀 감상은 책 ‘열하일기’에 잘 녹아들어 있다.

물론, 박지원도 ‘변화의 흐름’에 초반에는 청나라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에서 그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태도는 그가 조선이라는 소국에 살면서 조선의 문화와 다른 문화는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청나라의 상인들과 교류하고, 조선과는 다른 청나라만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2)“사람들이 오랑캐라 부르는 오늘의 청 왕조는 무엇이든 나라에 이익이 될 만하면 그 법이 오랑캐한테서 나왔다 해도 머뭇거리지 말고 본받아야 한다.” 이 구절에는 박지원이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보는 인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발전에 필요한 ‘변화’는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박지원이 받아들이고자 한 청나라의 풍습은 농업, 공업을 비롯하여 장사의 혜택이 어떻게 널리 미칠 수 있는지 등인데, 이들은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배워서 좋을 만한 청나라의 풍습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지원이 청나라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다. 3)“한족 여자들이 전족한 발은 차마 볼 수가 없던데요. 발뒤꿈치로 걷는 모양이 꼭 보리를 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여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꼴이 보기 흉합니다.”라는 말을 청나라 사신에게 하였는데, 이는 아무리 다른 문화라고 할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문화라고 생각되면 멀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박지원의 태도를 ‘변화’에 주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가 청나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주체성은 자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타문화를 배척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자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주체성이란, 변화 속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며, 우리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분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몸소 실천한 박지원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함으로써 낙후된 조선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즉, 그의 태도는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개방적이었다.

1) 열하일기(보리출판사) p.47

2) 열하일기(보리출판사) p.75

3) 열하일기(보리출판사) p.182

그가 북학파였던 이유도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용후생을 기반으로 조선의 현실 개혁 방안을 청나라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갖는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자국에 대한 ‘주체성’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우리는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무비판적이라는 말은, 분별없이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요소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 단적인 사례로 6.25 전쟁 당시 밀가루 원조를 들 수가 있다. 밀가루 시장을 의도해서 개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우리나라가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것이었다. 이는 국내산 밀가루의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하였고, 이 변화에 무감각한 당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립을 위축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무비판적 수용은, 변화했다는 것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대인과 박지원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박지원은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해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우리는 주체성이 결여된 변화를 수용하다 보니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도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변화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현재보다 보완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지배적 문화에 의한 휩쓸림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칫하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수로 관개 시설을 재정비하고, 다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근대화는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근대화로 인한 빠른 변화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주택 계량사업을 실시한 박정희 정부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처럼 무분별한 근대화 지향은 우리의 향토성과 서정적인 문화가 파괴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변화가 휩쓸림으로 변질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주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주체성은 ‘자국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주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하며, 이것이 자국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박지원의 태도처럼,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배울 만한 요소를 수용한다면, 이를 무턱대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